



Assessing a Relationship between Citizens' Political and Ideological Tendency Perception toward the Police

Jun Hyuk Ryu¹, Tae Kyung Hong²⁺

¹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Hayangro 13-13, Hayang-eup, Gyeongsan-Si, Gyeongbuk, Korea

²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Kaya University, 50830, Sange-ro, Gimhae-Si, GyeongNam, Korea

Abstract

On the basis of survey data on 2091 randomly selected in Seoul at 201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adopted and found several important results. First, people who voted for candidate Moon Jae-In are more likely to show negative perceptions in trust for police, satisfaction for police response, police crime fight effectiveness than people who voted for candidate Park Keun-Hye at 18th President election. Second, this study also found that ideological tendency also have effect on various public perception toward police. people who have progressive or moderate ideology are more likely to show negative perception toward police than people who have conservative ideology in trust for police, satisfaction for police response, police crime fight effectiveness. These results suggest that police organization must maintain neutrality from political power to get citizen's help and fight for crime effectively.

Key words: public perception, police, political tendency, ideological tendency

1. 서론

사회적 자본에 관한 Putnam(1995)의 연구에 따르면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로서 간주된다. 특히 사회적 자본이 잘 확충된 나라일수록 국민 간의 신뢰가 높고 거래비용이 적고 효율성은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정부에 대한 신뢰는 올바른 정책 집행을 위해 집단간 갈등 해결을 위해서도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경찰을 포함한 모든 정부의 하부 조직에 적용되는 법칙일 것이다.

최근 형사사법제도 분야에서의 정당성(Legitimacy)

에 대한 연구들은 처벌과 치료보다는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법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범죄를 예방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Sunshine & Tyler(2003:514p)에 따르면, 정당성(Legitimacy)은 권위나 제도가 따르거나 복종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시민들이 느끼게 이끌어주는 권위나 제도의 자산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신뢰성은 이러한 정당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경찰이 더 많은 국민으로부터, 그리고 다양한 국민으로부터 더 높은 수준의 정당성(Legitimacy)을 가진다면, 경찰은 그들의 다양한 목표들을 획득하는데 더욱 효과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찰에 대해 시민들이

⁺ Corresponding author: Tae Kyung Hong, Tel. +82-55-330-1116, e-mail. hercyna21@hanmail.net

높은 수준의 정당성(Legitimacy)을 가진다면, 경찰의 재량권 확대,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높은 수준의 협력, 그리고 시민들의 법규 준수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은 이미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도 나타난 결과이다(Ren, *et. al.*, 2005; Tankebe, 2009; Sunshine & Tyler, 2003).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경찰은 국민들로부터 신뢰성을 포함한 정당성 회복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사회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그리고 이념적 차이에 따라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포함한 다양한 인식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최근에 학자들은 경찰에 대한 소수 민족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서 갈등적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갈등적 시각(conflict perspective)¹⁾은 사회에 서로 상반된 가치와 이익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국가는 가장 큰 권력을 가지는 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대표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주장은 법의 형성과 형사사법기관에서 법의 작동에 까지 적용되게 된다. 갈등이론의 입장에서 보면 법은 불공평하고, 권력을 가진 지배계급의 이익에 봉사하거나 유리하게 작동하며, 기존의 권력적, 경제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통제도구라고 여긴다(Lee, *et. al.*, 2013).

대표적인 갈등이론가인 Vold(1958)는 그의 저서 이론 범죄학(Theoretical Criminology, 1958)에서 집단 갈등이론(Group Conflict theory)을 제시하였다. 그는 사람들은 집단 지향적이며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집단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사회 질서

는 집단 간의 합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힘과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집단 간의 불편한 갈등의 상호작용을 반영한다고 보았으며, 집단 간의 갈등은 특히 입법 정책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다양한 집단들 속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집단이 입법과정에서 더 많은 표를 획득할 것이고, 법이 어떻게 제정되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일단 새로운 법이 통과되면, 그 법의 제정에 반대했던 자는 더 많은 법률을 위반하게 된다. 그 법이 자신들의 이익이나 목적을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법 제정을 지지했던 자는 그 법이 자신이 추구하는 이익과 목적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 법률을 더 잘 준수하고 사법체제에 범위반을 단속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된다. 즉 입법부의 과반수를 확보하는 자가 정부의 사법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어떤 자가 공식적으로 범죄자로 정의되고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리해 보면 “법의 제정, 법의 위반, 법의 집행 등의 정치적 과정은 이익집단들 사이의 뿌리 깊은 근원적인 갈등과 국가경찰력의 장악을 위한 투쟁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입법 당시 다수파는 경찰력을 장악하고, 누가 범위반자인가를 결정하는 경찰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Vold, 1958: 208-209).

시민의 경찰 인식연구에서도 갈등이론은 흑인이 또는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왜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적용되었다. Weitzer & Tuch(2006: 8)의 경우 소수 민족이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중요한 이론적 근거로서 다양한 갈등이론 중에서 집단 위치 이론(group position theory)을 제시하였다. 집단 위치 이론에 따르면, 인종적, 집단적

1) 현대 갈등 이론의 많은 부분은 독일의 경제학자이며 사회 철학자인 마르크스의 글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글에는 범죄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자본주의 사회와 인간문명의 역사에 대한 그들의 이론적 서술은 범죄학 내에서 갈등 이론의 발전을 가져오는 토대를 가져왔다. 마르크스의 주장에 따르면, 자본주의 하에서는 부르주아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이고, 프롤레타리아는 부르주아를 위한 노동 계급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업은 노동자들의 소외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소외는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의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은 인류 역사의 모든 부분에서 존재해 왔으며, 필연적으로 계급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한쪽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현존하는 관계를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다. 범죄학 영역에서 현대의 갈등이론가들은 법률과 형사사법제도가 사회통제의 수단으로서 계급투쟁을 억제하고, 계급의 분화를 유지하는 법률 제정, 법률 집행 행위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Brown, *et. al.*, 2013).

사고방식 또는 인식은 다민족 사회에서 인종간 그리고 집단 상호간의 물질적 보상, 권력, 그리고 지위를 위한 경쟁과 투쟁을 반영한다. 인식에서의 어떤 집단 간 또는 인종간의 차이는 개인적인 신념이나 믿음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 또는 인종과 비교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위치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a collective sense of group position)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또한 집단 위치이론에 따르면 지배 집단은 경쟁 집단에게 자신들의 특권이나 자원(Resource)을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는 위협 인식(perceived threat)을 가지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피지배집단의 경우 그들은 이익은 현재 유지되고 있는 집단간 인종간 질서에 대해 도전함으로써 증가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Weitzer & Tuch(2006)는 한발 더 나아가 사회 제도와 집단 관계(Group relations and social institutions)분석으로 확대함으로써 집단 사이에 따른 경찰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만약 특정 집단이 그들이 사회의 다양한 가치적 자원에 대한 특권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제도 및 기관들과 친밀한 유대를 가질 것이다. 대표적인 제도로써 형사사법제도를 들 수 있으며, 그 중에서 경찰은 지배적 집단이 협력자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심각하게 분열된 국가와 사회들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북 아일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경찰은 사회 경제적 제도를 유지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전통적으로 지배적인 인종이나 집단의 경우 경찰을 피지배집단을 억압하는 도구로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찰과 지배 또는 다수집단의 친밀함은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지만, 미국과 같이 민주화가 상당히 진전된 국가라 할지라도 인종적으로 깊은 갈등을 내재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특정 인종들과 경찰 간의 친밀감은 충분히 예측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험적 연구들 역시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백인은 경찰을 더욱 더 강

하게 지지해 왔으며, 흑인에 대한 경찰의 차별적인 대응을 용인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나아가, 만약 경찰이 비난받는다면, 백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간접적으로 위협을 받는다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Bayler & Mendelsohn, 1969). 결과적으로 백인들은 경찰의 많은 잘못된 행위들에 대한 혐의에도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경찰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개혁의 방향까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기도 한다(Weitzer & Tuch, 2004; 2005). 경찰에 대한 시민 의식에 대한 미국에서의 많은 연구결과에서 소수민족이 경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Bayley & Mendelsohn, 1968; Boggs & Gallier, 1965; Bordua & Tifft, 1971; Erez, 1984; Brandl, *et. al.*, 1994; Leiber, *et. al.*, 1998; Weitzer & Tuch, 2005).

이러한 인종간 정치적 성향에 따른 경찰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미국에서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루지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과 같은 사회적 분열이 높은 다른 국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에서 소수민족은 정부를 중립적이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소수민족들은 경찰과 정부의 정당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다. 소수 인종의 정부와 경찰에 대한 낮은 정당성 평가는 국가 내부의 다양한 안전에 대한 위협을 양산했으며, 국가 경찰력의 대부분이 정치적 범 죄들을 통제하는데 투입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경찰 활동과 인사 방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어, 경찰은 소수 민족의 집회와 시위에 대해 국가에 대한 정치적 전복 의도로 간주하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매우 강한 법 집행을 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Hasisi, 2008: 1125). 북아일랜드와 짐바브웨와 같은 국가에서는 경찰 계급의 상층부는 지배 인종 집단에 의해 대부분이 채워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 국가들에서 경찰은 정권의 반대자를 억압하는 역할과 더불어, 일반적인 범 죄 통제와 국가에 대한 경비 업무를 위한 이중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과중한 업무로 인해 공권력 사용 측면을 포함하여 소수 민족 통제를 위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하고 있다(Weitzer, 1990).

III. 한국의 선행 연구

현재 우리 한국 사회 역시 상당 수준의 집단간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앞서 제기한 국가들처럼 인종적으로 분리된 사회는 아니지만, 한국 사회 역시 권력을 획득하거나 유지하려는 집단들 간의 갈등이 광범위하게 표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갈등은 대표적인 집단 갈등 중 하나이며, 선거와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특히 영남과 호남 지역의 갈등은 더 많은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위한 집단간 경쟁으로 간주될 수 있다. 경제적 관점에 의하면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화 발전 과정에서 산업화를 통한 영남지역의 발전에 비해 농업지역으로서의 호남지역 차별을 통한 불균형 발전이 사회경제적 지역 격차를 야기함으로써 특정 지역 중심의 경제적 발전이 지역 간의 반목과 갈등을 양산하였다는 것이다. 권력적 측면에서는 권위주의 시대이후 특정 지역의 인재만을 등용하여 모든 권력을 특정 지역 사람들에 의해 독식되어 왔다는 점이다. 1961년 군사 쿠데타 이후 영남출신이 집권함으로써 고위직 인사에서 영남출신 진출이 크게 늘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김영삼 정권이 끝난 1998년 까지 계속되었다. 특히 권력구조의 최상층 부를 구성하는 청와대, 군, 경제, 법집행 부처의 고위관료 중에는 군사정권과 김영삼 정권 전 기간에 걸쳐 영남출신의 편중도가 막중하게 높았던 반면, 호남출신은 철저히 소외되었다(Kim, 2014). 이러한 인사에 대한 지역적 편중 문제는 한국의 모든 정권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이다.

지역주의에 따른 갈등과 더불어 우리 사회는 매우 심각한 이념 갈등을 겪고 있다. 이념에 따른 집단 간의 갈등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진보 이념은 분단과 한국 전쟁 이후 진보당의 소멸과 함께 철저히 억제 되어 왔다. 4.19혁명과 2공화국 시기에 학생들과 지식인 중심으로 혁신운동이 분출되기도 하였지만, 군부권위주의 체제 아래에서 보수주의에 의해 이념적 동질화가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이념 갈등이 사회 다양한 측면

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Jang, 2014). 예를 들면,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시작으로 촉발된 촛불시위,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학계의 이념갈등, 천안함 침몰 원인을 둘러싼 이념 대립뿐만 아니라 많은 복지, 부동산, 조세를 둘러싼 정책들에서도 극단적인 이념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념적 갈등이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는 지표는 다양한 조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의 이념 갈등은 진보-보수 차원을 넘어서 계급 및 계층 갈등을 포함하는 서구 유형의 이념 갈등양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Hyun, 2008).

갈등이론에 따르면 형사사법 제도는 권력이 많은 사람들보다 권력이 적은 사람들을 처벌하려는 법률의 경향이 있으며, 어떤 개인 또는 집단들이 다른 개인들이나 집단들과 비교하여 그들의 권력 지위를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법률적 절차나 기관들을 이용하기도 한다(Turk, 1969). 역사적 측면에서 한국의 경찰은 이러한 갈등이론과 상당히 합치되는 행위를 해왔다. 1948년 정부 수립부터 최근까지 정권을 잡은 특정 정당과 이들 정당이 추구하는 특정 이데올로기와 결부되어 정치적 선거와 야당 탄압에 이용되어 정치적 중립성에 많은 오점을 남겨왔다. 예를 들면, 이승만 정권에서 그의 측근들을 경찰고위직에 앉아 1946년 11월 과도입법선거와 1948년 5월 총선에서 경찰이 부정선거를 저지르는데 앞장을 섰다(Lee, et. al., 2001). 이외에도 한국 경찰은 이승만 자유당 정부와 정권유지 전략에 맞추어 북한에 대한 대공투쟁과 야당에 대한 억압에 관여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1952년 발췌개헌과 1954년 11월 사사오입개헌에 경찰력이 동원된 사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대표적인 경우이다(Kim, et. al., 2004).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반공 이념을 표방하면서 집권당의 정권유지를 강요당하는 시대적 상황의 전개로 경찰은 1960년 3.15 부정선거에의 개입과 4.19 혁명시의 과잉진압으로 경찰의 신뢰는 크게 실추되었다(Lee, et. al., 2007). 1972년 박정희 정권은 10월 유신을 선포함으로써 대통령의 선거를 크게 강화하고 저항세력을 물리적으로 탄압하였다. 특히

경찰은 유신정권을 지탱하는 최전선에서 활용되었으며, 1980년 신군부가 탄생한 이후에도 연이은 시위집안에 동원되어 민생치안을 외면하고 시국치안에 많은 인력이 동원되는 현상은 계속되었다(Kim, *et. al.*, 2007). 경찰력이 시국 치안에 대해 과도하게 집중하는 현상들은 앞서 제기한 이스라엘, 그루지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과 같이 사회적 분열이 높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다.

시민의 정치적 성향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차이에 따른 경찰에 대한 인식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포함한 시민들의 인식에서 정치적 이념적 차이에 대한 연구들이 존재하고 있다. 2009년 김상돈의 연구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의 기간 동안 참여정부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청와대, 국회, 사법부, 군대 등의 여섯 가지 영역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정치적 성향, 거주 지역,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른 정부 정책과 국가기관 불신에 대한 비교 검증을 시도하였다. 우선 연구는 2004년 자료에서는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2005년 자료에서는 한나라당 지지자와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당시 참여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았으며, 국가 기관에 대한 불신 결과는 2003년에는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2005년에는 영남 지역 거주자들이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정책 불신과 국가 기관 불신에서 시민의 정치적 성향과 지역적 특징이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진보적인 정부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집단과 이들이 지지하는 정당 지지자, 그리고 영남지역의 시민들이 정책과 국가 기관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른 연구들에서도 나타난다. Kum & Beck(2010)의 연구는 2007년 참여 정부부터 2009년, 2010년 이명박 정부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 신뢰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들의 연구는 진보적 정부 그리고 보수적 정부에 걸쳐 시민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정부의 신뢰도 분석이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7년에는 진보 성향의 집단이 정부 신뢰수준에서 보

수 성향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높는데 비해, 2009년과 2010년의 경우 보수성향의 집단이 진보 성향의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신뢰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Kum & Beck(2010: 217)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이념적 성향과 개인적 정치적 성향이 일치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는 증가한다는 측면이 한국에서도 부분적으로는 지지된다는 결과로 해석하였다.

비록 이러한 연구들이 경찰에 대한 신뢰도에 미치는 연구가 아니지만, 경찰 역시 정부의 치안과 범죄를 책임지는 하부 기관으로서 시민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성향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경찰을 둘러싼 한국의 상황이 다른 사회 분열이 높은 국가들과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갈등 이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 또는 형사 정책적 제도가 특정한 집단이나 계층을 위해 움직이고, 특정 집단이 그들이 사회의 다양한 가치적 자원에 대한 특권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 집단은 최우선으로 경찰을 자신의 특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인식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그들의 이익을 지켜줄 제도와 친밀함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반대 집단은 경찰은 중립적이지 않으며, 경찰의 정당성과 신뢰도는 낮다고 인식할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역사적으로 경찰과 상당한 대립적 관계를 유지해온 한국의 진보적 진영의 경험을 고려해 본다면, 진보적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이 경찰에 대한 인식에서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과는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진보적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정당 또는 정당의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보수적인 정당과 정당의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경찰에 대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구체적인 가설들을 설정해 보고 검증해 보고자 한다.

연구 가설 1: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지지자는 박근혜 지지자들에 비해 경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다.

연구 가설 2: 진보적인 이념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보수적 이념 성향을 가진 사람에 비해 경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다.

IV.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분석 자료는 서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구축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설문 조사는 2013년 1월에 23일부터 2월 4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5명의 설문 조사 요원들과 연구자는 할당된 지역 동에서 총 2091명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자료는 2012년 대선이 끝나고 한 달 전후의 시기에 도출한 것으로 시민의 정치적 성향과 이에 따른 경찰에 대한 인식이 잘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 자료는 서울 지역 24개 지역구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조사를 위한 표본추출방법으로 비확률표본 추출 방법 중에 할당표본 추출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각 구에서 동의 표본을 추출한 다음, 추출한 지역 동 안에서 무작위로 20명 이상을 할당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2.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측정

종속변수로서 경찰에 대한 시민의 5가지 인식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5가지의 인식은 경찰 신뢰성, 경찰 재량권 허용, 경찰 시민 대응, 경찰 범죄 대응능력, 경찰 도움 여부를 포함한다. 우선 경찰 정당성은 다음의 각각의 질문들로 측정하였다. ①“나는 경찰을 신뢰할 수 있다”, ②“한국 경찰은 정직하다”, ③“한국 경찰은 청렴하며 부정부패와 거리가 멀다”, ④“한국 경찰은 법을 준수한다”. 경찰 재량권 허용 여부는 다음의 각각의 질문들로 측정하였다. ①“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에게 더 많은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②“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 경찰 시민 대응은 다음의 각각의

질문들로 측정하였다. ①“경찰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한다”, ②“경찰은 시민들에게 공손하게 대한다”, ③“경찰은 시민들의 권리를 존중한다”, ④“경찰은 범죄 피해자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찰 범죄 대응능력은 다음의 각각의 질문들로 측정하였다. ①“경찰은 범죄와 무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②“한국 사회의 범죄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③“한국 사회는 점차 안전해 지고 있다”, ④“경찰은 범죄자를 반드시 잡을 것이다”. 경찰 도움 여부는 다음의 각각의 질문들로 측정하였다. ①“경찰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경찰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②“범죄를 목격하였다면 경찰에게 즉시 신고할 것이다”, ③“경찰에게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각각의 질문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는 리커트식(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종속 변수는 측정된 값을 모두 합한 값을 사용하였다.

독립 변수는 정치적 성향과 이념 성향을 측정하였다. 우선 정치적 성향은 “2012년 12월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하였나요?” 질문으로 측정하였다.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박근혜”, “문재인”, “기타”, “투표하지 않음”으로 응답하였으며, 기타와 투표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박근혜와 문재인 투표자만을 비교하였다. 이념적 성향은 “귀하가 생각하는 귀하의 정치적 성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측정하였으며,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보수”, “중도”, “진보”로 응답한 결과를 측정하였다. 표 1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종속변수는 등간척도(또는 비율척도)로 측정되어 이에 적합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술통계로 제시하고 있다. 독립 변수는 명목 척도로 빈도수와 백분율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적 성향은 1,540명의 응답자 가운데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자를 지지한 응답자가 755(49%), 문재인 후보자를 지지한 응답자는 785(51%)로 문재인 후보자를 26명 더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적 성향에 대한 측정에서 1971명의 응답자 중에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보수라 응답한 사람은 595(30.2%)명, 중도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dependent and independent variables

	Variable	Descriptive statistics
Dependent variable	Trust	Mean 11,719 St.D 2,827
	Discretion	Mean 6,46 St.D 1,80
	police response	Mean 11,56 St.D 2,927
	crime effectiveness	Mean 10,32 St.D 2,93
	Police Help	Mean 10,98 St.D 2,08
Independent variables	Political tendency	Kean Hye Park 755(49%), Jae In Moon 785(51%)
	Ideological Tendency	Conservative 595(30.2%), Moderation 960(48.7%), Liberal 416(21.1%)
	Gender	Female 1043 (52.6%) Male 927 (47.4%)
	Age	Mean 38.42 St.D 13.812
	Education	Mean 3.28 St.D 0.023
	Income	Mean 3.82 St.D 0.041
	Type of House	Rent, etc = 1164 (59.3%), Owner = 798 (37.4%)
	Fear of crime	Mean 26.9106 St.D 0.2
	Disorder	Mean 8.765 St.D 0.1
	Victimization	Yes = 29.9% No = 70.1%

라고 응답한 사람은 960(48.7%)명, 진보라고 응답한 사람은 416(21.1%)명으로 중도라고 응답한 사람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자는 0으로 남자는 1로 정의하였다. 연령은 당신의 연령은 몇 살입니까? 에 대한 응답으로 비율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사회적 계층의 측정을 위한 학력, 소득은 서열 척도를 이용한 측정 방식을 사용하였다. 학력은 1=중졸이하, 2=고졸, 3=전문대졸, 4=대졸(대재), 5=대학원졸(대학원재)으로 코딩하였으며, 소득은 1=99만 원 이하, 2=100-199만원, 3=200-299만원, 4=300-399만원, 5=400-499만원, 6=500-599만원, 7=600-799만원, 8=800만 원 이상으로 각각 코딩 처리하였다. 범죄 두려움은 다음의 각각의 질문들로 측정하였다. ①나는 범죄 피해자가 될까 두렵다 ②나는 동네를 밤에 혼자 걸을 때 불안하다 ③나는 우리 동네에서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④나는 동네에서 아이들이 범죄피해를 당할까 걱정스럽다 ⑤나 또는 가족 또는 누군가 성폭력 피해를 당할까 걱정스럽다 ⑥나는 폭행을 당할까 두렵다 ⑦나는 동네에서 강도를 당할까 두렵다 ⑧나는 동네에서 누군가 고의로 나의 집이나 차량을 파손할까 걱정스럽다 ⑨누가 집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쳐갈까 두렵다. 무질서는 ①우리 동네에서는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볼 수 있다. ②우리 동네에서는 술 취해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③우리 동네는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④우리 동네는 아이들에게 환경적으로 유해하다. 각각의 질문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는 리커트식(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종속 변수는 측정된 값을 모두 합한 값을 사용하였다.

V.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 프로그램 이용하여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경찰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정치적 성향과 이념적 성향 변수의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chi Square test를 통해 독립성 검증²⁾을 실시하여 독립 변수의 각각의 종속변수들 사이의 독립성 여부를 측정하였다. <Table 2>의 결과에 따르면, 전체 1,523명의 응답자 가운데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534명이었으며, 이들의 대부분의 응답자인 510명이 박근혜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³⁾. 반면,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자 344

2) 독립성 검증은 두 변수가 명목척도일 경우에 사용하는 이변수 통계방법이다.
3)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과 기타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Table 2. Chi Square Test

		Ideological Tendency			Total
		Conservative	moderate	Liberal	
Political tendency	Park Keun hye	510	218	30	749
	Moon Jae In	33	427	314	774
	total	534	645	344	1523
Pearson Chi Square		712.126***			
Cramer V		.694***			

***p<.001, **p<.01, *p<.05

명 중 314명이 문재인 후보자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진보 이념을 가진 사람들의 투표 성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Table 2>에서의 독립성 검증에서 Pearson Chi Square값은 .00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념적 성향과 정치적 성향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Cramer V 통계량이 .694를 나타냄으로서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⁴⁾. 따라서 두 개의 변수를 한 개의 모형 안에 포함할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두 개의 변수를 모형에 각각 포함하는 모형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다중 회귀분석을 시도하기 전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에 대한 검증으로 VIF(Variance Influence Factor) 결과를 제시하였다. <Table 3>에서 <Table 7>까지에서 다변수 분석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모형에서 모든 VIF 통계가 2.5이하로 나타남에 따라 보수적인 접근에도 불구하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⁵⁾ 우선 전체적인 모형의 적절성은 회귀분석의 유의성 분석으로 사용되는 F 검증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Table 3>는 경찰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시민들의 정치적 성향의 영향력 분석이다. 우선 연령이 높을수록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영향력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피해 경험 역시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에서 중요한 결과로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지지자의 경우 박근혜 지지자에 비해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더 낮다는 점이다. 모형에서는 Beta=.151로서 모형에 포함된 다른 변수들과 비교해서 가장 영향력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시민들의 이념 역시 경찰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의 오른쪽 모형에서 자신의 이념이 중도 그리고 진보라고 응답한 시민들은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들에 비해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더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Table 4>에서는 경찰 재량권 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다. <Table 3>와 같이 연령이 높을수록 경찰의 재량권 확대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영향력 역시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에서의 결과와 조금 다른 점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경찰의 재량권 확대에 더욱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경찰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에게 더 많은 권한과 독자적 수사권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의 정치적 성향은 경찰의 재량권 확대에서 별 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다. 문재인 지지자와 박근혜 지지자 사이에서 경찰 재량권 확대에서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못했으며, 보수, 중도, 진보 사이에서도 경찰 재량권 확대에 대해서는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Cramer V 통계량은 교차표의 크기에 따라서 값의 크기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 여기에서는 2*3 교차표이므로 효과는 .01 작음, .30 중간, .50은 크다는 관점에서는 .05보다는 크기 때문에 정치적 성향과 이념적 성향의 관계는 크다고 볼 수 있다(Lee & Lim, 2012).

5) Cohen, J., P. Cohen, S. G. West and L. S. Aiken, 200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 Sciences*. New Jersey: LEA.; Allison, P. 1999. *Multiple Regression: A Primer* (Research Methods and Statistics). CA: Pine Forge Press.

〈Table 5〉는 경찰의 시민 대응에 관한 시민들의 만족도에 대한 분석이다. 연령은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적 성향에서 문재인 지지자는 박근혜 지지자 보다 경찰의 시민 대응 방식을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보수에 비해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가진 중도, 진보라고 응답한 시민들의 경우 경찰의 시민 대응 방법에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특징에 대한 변수들은 각각의 모형에서 매우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Table 6〉은 경찰의 범죄 대응 능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대한 결과이다. 연령은 경찰의 범죄 대응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각각의 모형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 변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문재

인 지지자의 경우 박근혜 지지자에 비해 경찰의 범죄 대응 능력에서 부정적인 인식, 중도와 진보 주의자 역시 보수주의자에 비해 경찰의 범죄 대응 능력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Table 7〉은 경찰에 대한 도움 의도에 대한 인식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가계 수입이 많을수록 경찰에 대한 도움의 의지가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범죄 피해를 경험한 시민들은 경찰에 대한 도움 의지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민들의 정치적 성향은 경찰 도움 의도에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지지자와 박근혜 지지자의 경찰 도움 의도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며, 중도, 진보, 그리고 보수 사이에도 경찰 도움 의도는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Table 3. Trust toward police

Variable	B (Std. E)	Beta	VIF	B (Std. E)	Beta	VIF
Gender	.126 (.157)	.022	1.063	.188 (.140)	.033	1.071
Age	.026*** (.006)	.122	1.365	.021*** (.006)	.101	1.291
Type of house	.083 (.156)	.014	1.019	.006 (.139)	.001	1.014
residence period	.002 (.011)	.005	1.152	.004 (.010)	.009	1.151
Education	.149 (.085)	.053	1.315	.066 (.074)	.024	1.246
house income	-.064 (.044)	-.041	1.117	-.043 (.039)	-.027	1.114
Marage	.122 (.153)	.021	1.014	.095 (.137)	.016	1.015
Fear of crime	.001 (.009)	.004	1.074	.002 (.008)	.006	1.078
crime victim	-.864** (.312)	-.073	1.009	-.825*** (.237)	-.082	1.006
Moon Jae In ⁶⁾	-.865*** (.159)	-.151	1.093			
Moderate ⁷⁾				-.578*** (.160)	-.101	1.402
Liberal ⁸⁾				-.629** (.198)	-.088	1.383
F		7.301***			5.286***	
R ²		.051			.032	

***p < .001, **p < .01, *p < .05

6) 준거 집단은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 (이후의 모형에도 같다. 따라서 이후의 모형에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7) 준거 집단은 보수 (이후의 모형에도 같다. 따라서 이후의 모형에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8) 준거 집단은 보수 (이후의 모형에도 같다. 따라서 이후의 모형에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Table 4. Empowerment

Variable	B (Std. E)	Beta	VIF	B (Std. E)	Beta	VIF
Gender	-.052 (.099)	-.014	1,063	-.014 (.088)	-.004	1,073
Age	.013** (.004)	.098	1,364	.012*** (.004)	.088	1,293
Type of house	-.067 (.099)	-.018	1,018	.072 (.087)	.020	1,013
residence period	-.003 (.007)	-.012	1,155	-.002 (.006)	-.007	1,154
Education	.072 (.054)	.041	1,315	.026 (.046)	.015	1,246
house income	.119*** (.028)	.121	1,116	.104*** (.025)	.105	1,114
Marage	.122 (.097)	.034	1,013	.076 (.086)	.021	1,014
Fear of crime	.006 (.006)	.029	1,074	.001 (.005)	.007	1,079
crime victim	-.248 (.197)	-.034	1,009	-.339* (.149)	-.054	1,006
Moon Jae In	-.128 (.100)	-.036	1,092			
Moderate				-.074 (.101)	-.021	1,406
Liberal				-.170 (.125)	-.038	1,386
F		4,238***			3,903***	
R ²		.030			.024	

***p < .001, **p < .01, *p < .05

Table 5. satisfaction for police response

Variable	B (Std. E)	Beta	VIF	B (Std. E)	Beta	VIF
Gender	.003 (.162)	.001	1,063	.048 (.144)	.008	1,071
Age	.017* (.007)	.079	1,359	.018** (.006)	.082	1,285
Type of house	-.024 (.162)	-.004	1,018	-.014 (.143)	-.002	1,013
residence period	.009 (.012)	.023	1,152	.008 (.010)	.019	1,150
Education	-.090 (.088)	-.031	1,312	-.078 (.076)	-.027	1,245
house income	-.002 (.046)	-.001	1,118	.011 (.040)	.007	1,116
Marage	-.045 (.159)	-.008	1,014	-.079 (.141)	-.013	1,015
Fear of crime	-.003 (.009)	-.009	1,074	.002 (.008)	.007	1,078
crime victim	.131 (.325)	.011	1,008	-.159 (.245)	-.015	1,006
Moon Jae In	-.715*** (.164)	-.121	1,092			
Moderate				-.559*** (.165)	-.095	1,401
Liberal				-.540** (.204)	-.074	1,381
R ²		.033			.023	
F		4,684			3,701	

***p < .001, **p < .01, *p < .05

Table 6. satisfaction for police crime fight effectiveness

Variable	B (Std. E)	Beta	VIF	B (Std. E)	Beta	VIF
Gender	.136 (.160)	.023	1,062	.125 (.144)	.021	1,070
Age	.037*** (.007)	.173	1,362	.032*** (.006)	.147	1,288
Type of house	.110 (.160)	.018	1,018	.127 (.143)	.021	1,014
residence period	-.002 (.011)	-.005	1,154	.005 (.010)	.013	1,152
Education	-.122 (.087)	-.042	1,313	-.062 (.076)	-.021	1,246
house income	.002 (.045)	.002	1,118	.025 (.040)	.015	1,116
Marage	-.165 (.157)	-.028	1,014	-.132 (.141)	-.022	1,015
Fear of crime	.012 (.009)	.038	1,073	.012 (.008)	.037	1,077
crime victim	.296 (.319)	.025	1,009	-.268 (.244)	-.026	1,006
Moon Jae In	-.552*** (.162)	-.094	1,091			
Moderate				-.467** (.165)	-.079	1,401
Liberal				-.631** (.204)	-.085	1,382
F		8.347***			6.710***	
R ²		0.058			.041	

***p < .001, **p < .01, *p < .05

Table 7. cooperation for police

Variable	B (Std. E)	Beta	VIF	B (Std. E)	Beta	VIF
Gender	-.204 (.116)	-.048	1,063	-.190 (.103)	-.045	1,071
Age	.009* (.005)	.062	1,364	.009* (.004)	.060	1,290
Type of house	.031 (.116)	.007	1,018	.038 (.102)	.009	1,014
residence period	.010 (.008)	.034	1,154	.006 (.007)	.019	1,152
Education	-.042 (.063)	-.021	1,314	-.097 (.054)	-.047	1,246
house income	.098** (.033)	.085	1,117	.110*** (.029)	.095	1,115
Marage	-.109 (.114)	-.026	1,014	-.032 (.101)	-.008	1,015
Fear of crime	-.003 (.007)	-.014	1,075	-.004 (.006)	-.017	1,078
crime victim	-.100 (.232)	-.012	1,009	-.641*** (.174)	-.087	1,006
Moon Jae In	-.166 (.118)	-.040	1,092			
Moderate				-.011 (.118)	-.003	1,402
Liberal				.012 (.145)	.002	1,382
F		2.639***			4.006***	
R ²		.019			.025	

***p < .001, **p < .01, *p < .05

VI. 결론

이 연구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은 경찰에 대한 다양한 인식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자를 지지한 사람들이 박근혜 후보자를 지지한 사람들에 비해 신뢰성, 경찰 시민 대응, 경찰 범죄 대응의 인식에서 더욱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결과는 자신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경찰에 대한 인식에서도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진보적 그리고 중도적 이념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보수적 이념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경찰 신뢰성, 경찰 시민 대응, 경찰 범죄 대응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연구의 가설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2가지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난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자 지지자 그리고 진보적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박근혜 후보자와 보수적 이념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경찰에 대한 다양한 인식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과연 진보적 성향을 가지는 사람들, 그리고 진보적 성향을 대표하는 정당 또는 정당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항상 경찰에 대해 부정적인가라는 것이다. 앞서 정부와 다른 정부 조직에 대한 신뢰도 연구에서는 참여정부에서는 오히려 보수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더욱 더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정부와 개인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이 일치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는 증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보정당의 후보자가 집권할 경우 보수적 성향의 시민이 경찰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을 가질 가능성은 경찰에 대한 인식 연구에서 아직 열려 있다. 따라서 향후

의 연구는 정부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이 바뀔 경우에 범죄와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에 대해 시민들의 정치적 그리고 이념적 성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의 결과는 시대적 상황에 의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지 못하였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는 지역갈등, 그리고 이념갈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집단 상호간의 권력을 위한 경쟁을 가장 극명하게 반영하는 선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18대 대통령 선거는 민주화 이후 치러진 다른 선거와는 달리 보수/진보 프레임 하에서 치러진 최초의 양자대결이었으며⁹⁾(Kim, 2013), 지역적 영향력 역시 계속 되었다. 투표 결과 역시 투표층의 이념 성향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투표 성향은 매우 뚜렷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이념과 지역적 역할이 중요했던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찰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12년 12월 16일 밤 11시 대통령 선거를 3일 앞둔 날 김용환 서울 지방 경찰청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된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수사 결과를 당시 대통령 후보자 박근혜 후보와 보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발표함으로써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특히 경찰의 수사 발표 과정과 결과는 후보자들 간에 그리고 국민들 간의 상당한 논쟁을 불러왔으며, 대통령 선거 후보자와 선호 정당을 중심으로 나누어진 두 집단 간의 갈등은 극단에 치닫게 되고, 같은 상황에 대해 두 집단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 후보 측은 매우 부실하고 정치적인 수사라고 반발하면서, 경찰이 갑작스럽게 중간 수사라는 이름으로 수사내용을 공표한 것은 TV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가 밀린 것을 만회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겼으며 선거 승리를 위한 국가 권력의 부적절한 정치 개입으로 대통령 선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거론하며 경찰의 선거개입 의도를 명백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¹⁰⁾. 반대로 박근혜 후보자 측

9)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기준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보수의 프레임 전략에 의해 여권= 보수, 야권= 진보로 등치시키는 인식이 대중화 되어 있다(Kim, 2013: 123).

10) <http://www.segyefn.com/articles/article.asp?aid=20121217020505&cid>

은 야당의 정치 공작의 진실이 드러났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지난 18대 대선이 치러지고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어졌다. 선거 이후에도 김용관 서울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재판이 상당히 지속되었고, 선거 개입에 대한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따라서 진보 그리고 문재인 지지자의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선거과정에서의 경찰 고위직의 판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게 영향력을 주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의 정치적 성향과 이념적 성향은 경찰에 대한 인식에서 별 다른 영향력이 없는데 이러한 역사적 사건에 의해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연구의 한계점은 횡단 연구를 넘어서 종단연구를 통해 실행된다면 조금 더 명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강신명 청장은 취임사에서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안전과 질서를 국민행복의 필수요건이자 경찰이 부여받은 기본적 책무라고 밝히면서, 위급에 처한 국민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단 1초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해 범인을 조기에 검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임을 강조하였다. 물론 국민의 안전에 대한 빠른 현장 대처가 국민의 신뢰성 회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기초한다면 경찰에 대한 시민 신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조직적 노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2달 후면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경찰작용은 강제적인 실행행사를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력에 의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정치성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권력에 의한 정치적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경찰 작용에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경찰 조직은 지지한 대통령 후보자, 그리고 이념적 성향에 따라 신뢰도가 다른 경찰이 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신뢰 높은 경찰이 되기 바란다.

References

- Kum, H. S. and J. S. Beck. 2010. Ideology, Political Trust and Policy Support.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48(4): 201-228.
- Kim, K. N. 2014. *Solving Regional Conflicts and Finding a Way of Citizen's Integration*. Summer Seminar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 Kim, S. H., et. al. 2004. Police Administration. Bobmunsa.
- Kim, S. D. 2009. The Impact of Socioeconomic Status and Political Orientation on Distrust in State Institutions. *Korea Sociology*. 43(2): 25-54.
- Kim, J. H. 2007. A Study of Evaluation and Prospect of Korea's Police Organization 60 years. *Law Study*. 28: 443-463.
- Kim, J. H. 2013.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Reconfiguration of the Progressive in South Korea. *Economy and Society*. 97: 443-463.
- Lee, S. R., et. al. 2013. *Modern Society and Crime*. Chongmok.
- Lee, H. S. and J. H. Lim. 2012. *Spss 20.0 Manual*. Jyphyuntae.
- Lee, H. H., B. I. Cho, and E. R. Choi. 2001. *Introduction to Police Administration*. Korean Institute for Criminology.
- Lee, H. W. 2007. *Police Administration*. Bobmunsa.
- Jang, W. Y. 2014. *Overcome Ideological Conflict and Seeking a Way of Citizen's Integration*. Summer Seminar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i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35-76.
- Hyun, J. H. 2008. Ideological Conflict in Korea. *Korean Sociology*. 42(4): 213-241.
- Bayley, D. and Mendelsohn, H. 1969. *Minorities and the police: Confrontation in America*. Free Press.
- Boggs, S. and Galliher, J. 1975. Evaluating the Police: A Comparison of Black Street and Household Respondents. *Social problems*. 22(3): 393-406.
- Brown, S. E., F. Esbensen and G. Geis. 2013. *Criminology: Explaining Crime and Its Context*. Elsevier, Inc.
- Bordua, D. and L. Tift. 1971. Citizen Interviews, Organizational Feedback, and Police Community Relations Decisions. *Law and Society Review*. 6(2): 155-182.
- Brandl, S., J. Frank, R. E. Worden and T. S. Bynum. 1994. Global and Specific Attitudes toward the Police: Disentangling the

- Relationship. *Justice Quarterly*. 11(1): 119-134.
- Brown, B. and W. Benedict. 2002. Perceptions of the police,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and Management*. 25(3): 543-580.
- Erez, E. 1984. Self-Defined Desert and Citizens' Assessment of the Police. *Th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5(4): 1276-1299.
- Hasisi, B. 2008. Police, Politics and Culture in Deeply Divided Society.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98(3): 1119-1146.
- Leiber, M. J., M. K. Nalla and M. Farnworth. 1998. Explaining Juveniles' Attitudes toward the Police. *Justice Quarterly*. 15(1): 151-173.
- Putnam, R. D. 1995. Tuning in, Tuning out: The Strange Disappearance of Social Capital in America. *Political Sciences and Politics*. 28: 664-683.
- Ren, L., L. Cao, N. Lovrich and M. Gaffney. 2005. Linking Confidence in the Police with the Performance of the Police: Community Policing can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3(1): 55-66.
- Sunshine, J. and R. T. Tyler. 2003. The Role of Procedural Justice and Legitimacy in Shaping Public Support for Policing. *Law and Society Review*. 37(3): 513-548.
- Tankebe, J. 2009. Public Cooperation with the Police in Ghana: Does Procedural Fairness Matter. *Criminology*. 47(4): 1265-1293.
- Turk, A. 1969. *Criminality and Legal Order*. Rand McNally.
- Vold, G. B. 1958. *Theoretical Crimin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 Weitzer, R. 1990. *Transforming Settler States: Communal Conflict and Internal Security in Northern Ireland and Zimbabw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eitzer, R. and S. A. Tuch. 2004. *Rethinking Minority Attitudes toward the Police*.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Weitzer, R. and S. A. Tuch. 2005. Determinants of Public Satisfaction with the Police. *Police Quarterly*. 8(3): 279-297.
- Weitzer, R. and S. A. Tuch. 2006. *Race and Policing in America: Conflict and Reform*,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금현섭, 백승주. 2010. 정치적 이념, 정부신뢰 그리고 정책지지. *행정논총*. 48(4): 201-228.
- 김강녕. 2014. 지역갈등 극복과 국민통합의 모색. 대구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학술대회. 35-76.
- 김상호 외. 2004. 경찰행정학. 법문사.
- 김상돈. 2009.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성향이 국가기관 불신에 미치는 영향: 정부정책 불신의 매개효과. *한국사회학*. 43(2): 25-54.
- 김진혁. 2007. 한국경찰 60년, 평가와 전망. *법학연구*. 28: 443-463.
- 김정훈. 2013. 18대 대선의 의미와 진보의 재구성. *경제와 사회*. 97: 443-463.
- 이순래 외. 2013. 현대 사회와 범죄. 청목출판사.
- 이학식, 임지훈. 2012. Spss 20.0 매뉴얼. 집현재.
- 이황우, 조병인, 최응렬. 2001. 경찰학개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황우. 2007. 경찰행정학. 법문사.
- 장우영. 2014. 이념갈등 극복과 국민통합의 모색. 대구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학술대회. 35-76.
- 현재호. 2008.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 갈등: 정치적 대표체제로서의 정당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보*. 42(4): 213-241.

Received: Nov. 6, 2016 / Revised: Dec. 17, 2016 / Accepted: Feb. 12, 2016

시민의 정치적 그리고 이념적 성향과 경찰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 연구

국문초록 연구는 2013년 서울에서 무작위 추출된 2091명의 설문조사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몇 가지 중요한 결과를 발견하였다. 첫째, 연구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그리고 이념적 성향은 경찰에 대한 다양한 시민들의 인식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자를 지지한 사람들이 박근혜 후보자를 지지한 사람들에 비해 경찰에 대한 신뢰성, 경찰 대응 만족, 경찰 범죄 효과성 인식에서 더욱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 결과는 자신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경찰에 대한 인식에서도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중도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보수 이념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경찰 신뢰성, 경찰 시민 대응, 경찰 범죄 대응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경찰의 시민들로부터 지지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넘어서 정치적 측면에서도 중립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제어 : 시민인식, 경찰, 정치적 성향, 이념적 성향

Profiles **Jun Hyuk Ryu** : He earned Ph.D from University of Cincinnati,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School in 2009. Currently, He is teaching at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in police administration department. He is interested in citizen's perception toward the police, sentencing, evaluation of criminal justice policy(cincinnati@cu.ac.kr).
Tae Kyung Hong : She earned Ph.D from Keimyung University, Police administration Department. Currently, She is teaching Kaya University in police administration department. She is interested in domestic violence, date violence, alcohol abuse, sex crime(hercyna21@hanmail.net).